

삼성전자 “1년만 기다려달라” 파운드리 수익성 회복 ‘자신감’

다년 계약으로 불확실성 최소화
사전 수요 파악 통해 투자 탄력 조정
최근 실적회복... 성과급 전진 확대

삼성전자 주주총회 현장에서는 파운드리 수익성과 AI 반도체 경쟁력을 둘러싼 질문이 이어졌다. 특히 작자가 지속되고 있는 파운드리 사업을 중심으로 수익성 회복 여부에 대한 주주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사업부의 개별 실적을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수조원대 작자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18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삼성 전자 주주총회에서 한진만 삼성전자 파운드리사업부장(사장)은 “테슬라와는 지난해 계약을 체결했고 단순 수주를 넘어선 전략적 협력 관계”라며 “2나노 공정 기반 양산은 내년 하반기 미국 테일러 공장에서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파운드리에는 최소 3년 이상의 긴 호흡이 필요한 사업으로 1년 정도만 기다려주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일 것”이라고 자신했다

HBM 경쟁력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전영현 부회장은 “HBM4는 고객으로부터 ‘어메이징’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성능을 인정받고 있다”며 “차세대 제품에서도 기술 경쟁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전 부회장은 현금보유 여력 및 AI 거품 우려와 관련해 다년 간의 메모리 공



전영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 겸 DS부문장이 18일 오전 경기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7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급 계약을 대처 방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한 산업 특성상 안정적인 현금 확보가 중요하다”면서 “중장기 사업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기 또는 연 단위로 가져가던 고객사 계약을 3~5년 단위의 다년 계약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전에 수요 변동을 파악할 수 있어 투자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 과거와 같은 실적 변동성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디바이스솔루션(DS)은 HBM(고대역폭메모리)4 등 고부가 메모리를 중심으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파운드리에는 GAA(Gate-All-Around) 기반 2나노 공정 확대에 나선다. 시스템LSI는 SoC(시스템온칩) 설계 경쟁력과 공정 최적화를 통해 수익성 개선을 추진한다.

주주 질의응답에서는 인재 확보와 임

금 경쟁력 문제도 언급됐다. 회사 측은 “성과급이 낮았던 시기 보상 경쟁력이 약화된 것은 사실”이라며 “최근 실적 회복에 따라 성과급과 인센티브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주총장 로비에는 삼성전자의 차세대 기술과 제품이 전시됐다. HBM 4와 2나노 공정 기술을 비롯해 갤럭시 S 26, 갤럭시 Z 트라이폴드(TriFold), 비스포크 AI 가전, 마이크로 RGB TV, 투명 마이크로 LED 등이 공개됐다. 전시 공간에서는 제품 설명을 듣거나 사진을 촬영하는 주주들의 모습이 이어졌다.

현장에서는 주주 반응도 이어졌다. 한 주주는 “파운드리 작자가 이어지는 부분은 부담이지만 AI 반도체 경쟁력 회복 흐름은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DX·TV·가전 등 AI 중심 전략으로 강화

>> 1면 '10조 자사주 소각...'서 계속

삼성전자는 리스크 관리도 강화한다. 고객사와의 계약을 년 단위로 다년 계약으로 확대해 수요 변동성과 투자 리스크를 관리한다는 계획이다...DX(디바이스경험) 부문 전략도 AI 중심으로 재편된다. 노태문 DX부문장(사장)은 “갤럭시 AI를 기반으로 에이전틱 AI 경험을 확대하겠다”며 “스마트폰을 넘어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로 AI를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위

치·이어폰·노트북 등을 포함한 갤럭시 AI 기기를 2025년 4억대에서 2026년 8억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TV와 가전 역시 AI 중심 전략을 강화한다. AI TV 중심으로 제품 라인업을 재편하고, 가전은 ‘홈캐피털’ 전략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한다. 공조 사업은 플랫폼그룹을 중심으로 AI 데이터센터 시장을 적극 공략한다. 하민은 전장과 오디오 사업을 중심으로 성장 축 역할을 강화한다.

/구남영 기자



(왼쪽부터)전영현 삼성전자 DS부문장과 리사 수 AMD 최고경영자(CEO)가 18일 경기 삼성 전자 최첨단 반도체 생산지인 평택 팽에서 차세대 AI 메모리·컴퓨팅 기술 분야 협력을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AMD, AI 핵심 인프라 협력 확대

AMD AI 가속기에 탑재되는 HBM4 우선 공급업체 지정

에 업계 최고 성능 HBM4를 본격 탑재할 계획이다.

삼성전자와 미국 AI 반도체 기업 AMD가 인공지능(AI) 시대 핵심 인프라 경쟁에서 협력 관계를 한층 강화한다. 양사는 차세대 메모리와 컴퓨팅 기술 전반에 걸친 협력을 통해 고성능 AI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삼성전자 HBM4의 업계 최고 수준 성능, 신뢰성, 전력 효율성을 기반으로 AMD의 차세대 AI 가속기 ‘Instinct MI455X’ GPU는 AI 모델의 학습과 추론을 수행하는 고성능 시스템에 최적의 솔루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전자는 평택사업장에서 AMD와 차세대 AI 메모리, 컴퓨팅 기술 분야 협력을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업계 최초로 1c D램, 4nm 베이스다이 기술 기반 최고 성능 HBM4를 지난 2월부터 양산 출하한 데 이어, AMD에 HBM4를 공급하며 HBM 시장 주도권을 강화할 방침이다.

협약식에는 전영현 삼성전자 DS부문장, 리사 수 AMD CEO를 비롯한 양사 경영진들이 참석했다.

삼성전자와 AMD는 AI 데이터센터 랙 단위 플랫폼 Helios와 6세대 EPYC 서버 CPU의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고성능 DDR5 메모리 솔루션 분야에서도 협력한다.

전영현 DS부문장은 “삼성과 AMD는 AI 컴퓨팅 발전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공유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으로 양사 협력 범위가 확대될 것”이라며 “▲업계를 선도하는 HBM4 ▲차세대 메모리 아키텍처 ▲최첨단 파운드리 패키징 기술까지 삼성은 AMD의 AI 로드맵을 지원할 수 있는 독보적인 탄기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AMD의 차세대 제품을 위탁 생산하는 파운드리 협력에 대해서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리사 수 AMD CEO는 “차세대 AI 인프라 구현을 위해서는 업계 전반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삼성의 첨단 메모리 기술 리더십과 AMD의 ▲Instinct GPU ▲EPYC CPU ▲랙 스케일 플랫폼을 결합하게 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을 아우르는 탄기 솔루션의 강점을 활용해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AMD AI 가속기에 탑재되는 HBM4 우선 공급업체로 지정됐다.

양사는 이번 MOU 체결을 통해 AI-데이터센터용 차세대 메모리 분야에서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며, 고객들에게 최적의 AI 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차현정 기자 hyeon@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AMD의 차세대 AI 가속기 ‘Instinct MI455X’ GPU



배터리 3사, ‘기술·재무 전문가’ 이사회 배치

삼성SDI, 오재균 부사장 사내이사 선임
LG엔솔, 이명규 교수 사외이사 후보
SK이노, 장용호 총괄사장 후보 추천



배터리 업계가 정기 주주총회 시즌을 맞아 이사회 기능 재정비에 나서고 있다. 전기차 수요 둔화 속에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 비중이 확대되고 중국과의 기술 격차 대응 필요성이 커지면서 연구개발(R&D)·소재 경쟁력을 뒷받침할 기술 전문가와 재무·수익성 개선을 이끌 전략가를 이사회 전면에 배치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점으로 삼고 하반기 분기 흑자 전환을 목표로 제시했다.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에너지저장장치(ESS) 수요 확대를 기반으로 실적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리튬인산철(LFP)과 미드니켈, 초고출력·초경량 배터리 등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전고체·나트륨·리튬메탈 배터리 등 차세대 기술 확보도 병행하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SDI는 이날 서울 강남구 엘리에나호텔에서 제56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오재균 경영지원 담당(CFO)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하는 등 이사회 인선을 단행했다. 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감사위원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 총 6개 안건도 모두 가결됐다.

오는 20일 주주총회를 앞둔 LG에너지솔루션은 사외이사 후보에 이명규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를 올리며 소재 분야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배터리 성능과 원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소재 기술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을 반영한 인선으로 풀이된다. 이번 주총에서는 정관 변경과 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 등을 통해 이사회 운영 체계 정비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오 부사장은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 지원팀장 등을 거친 재무·전략 전문가로 투자 관리와 수익성 개선을 이끌 역할을 맡게 됐다. 삼성SDI는 자산 유동화를 통한 투자 재원 확보와 비용 효율화 등을 통해 재무 체질 개선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사인 SK이노베이션은 장용호 총괄사장을 사내이사 후보로 추천하며 책임경영 강화에 나설 예정이다. 장 사장은 에너지·화학 사업 기반의 경력을 바탕으로 관련 분야에서 높은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현재 SK㈜ 대표이사를 겸직하며 그룹 사업 포트폴리오 변화 방향을 이끌고 있으며, 사업 전반에 대한 균형각각과 통찰력을 토대로 SK이노베이션의 위기 극복 과제 추진을 주도하고 있다.

배터리자회사 SK온의 수익성 부담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번 인선은 사업 구조 재정비와 실행력 강화를 동시에 겨냥한 조치로 해석된다. 장 사장은 에너지·화학 사업 기반 경력을 토대로 그룹 내 사업 간 조정과 전략 실행을 이끌며 체질 개선에 힘을 실을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향후 2~3년 내 휴머노이드 로봇 등 신규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만큼 고에너지 밀도의 하이니켈 NCM 배터리와 LFP 기반 배터리 등 다양한 기술 조합이 요구된다”며 “배터리 기업들이 차세대 기술 확보와 제품 다변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사회 차원에서 기술 이해도가 높은 인사를 통해 전략적 의사결정을 강화하려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